

생생체험 Whatever | 직접 써 본 '구글 크롬캐스트·SKT 스마트 미러링'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TV 화면으로 본다.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N스크린(TV나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애기다. 최근 N스크린 기능을 지원하는 소형 장치들이 잇달아 출시돼 관심을 모은다. 주인공은 구글의 '크롬캐스트'와 SK텔레콤의 '스마트 미러링'. 두 제품은 각각 '클라우드 스트리밍'과 '미러링'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TV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선 동일한 기기로 취급된다. 같은 듯 다른 두 제품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직접 체험해 봤다.



화질은 '크롬캐스트' 콘텐츠는 'S 미러링'



크롬캐스트	제품	스마트 미러링
72 x 35 x 12mm	크기	99 x 34.8 x 10.4mm
HDMI	출력	HDMI
안드로이드 2.3 이상, iOS 6.0 이상	지원	안드로이드 4.2 이상, iOS 4.3 이상
4만9900원(권장소비자가격)	가격	5만원대(인터넷 최저가 기준)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제생
패적인 화질·시청환경 장점
사용 가능 콘텐츠는 제한적

간편한 설치·작동방법 장점
스마트폰 화면 그대로 TV 전달
화질 떨어지고 동기화 현상도

●설치·작동은 간편하게 끝~

얼리 어댑터들은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고 체험하는 일을 즐긴다. 하지만 스마트기기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즘, 거기에 적응하느라 골머리가 아픈 사람도 많다. 위의 두 제품도 최신 스마트기기 중 하나. 그렇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다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작동시킬 수 있다.

제품을 쓰려면 먼저 집에 있는 TV에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단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신 TV라면 모두 이 단자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 HDMI는 각종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TV에 HDMI 단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설치와 작동에선 '스마트 미러링'이 조금 더 간편했다. '스마트 미러링'은 스마트기기에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냥 HDMI 단자에 꽂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물론 TV의 출력 방식을 HDMI로 변경하고, 스마트폰의 미러링 기능을 켜 뒤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마치면 TV에는 어느새 현재 스마트

폰의 화면이 그대로 비춰진다.

'크롬캐스트'라고 복잡하지는 않다. 기기를 HDMI 단자에 꽂고 TV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단 스마트폰을 통해 웹사이트를 열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게 정말 필요인지 꼼꼼히 살펴야

이제 모든 설치를 마쳤다. 본격적으로 이용해 보자. 활용성 측면에선 두 제품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술이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화질 등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먼저 '크롬캐스트'는 콘텐츠를 온라인 저장공간에서 가져오는 스트리밍 방식이다. 스마트폰은 그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시청을 시작하면 스마트폰 화면에는 해당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 또 스마트폰으로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TV에는 선택한 영상이 계속 흘러나온다. 시청 환경도 쾌적하다. 실제로 영화 '살인의 추억'을 실행한 결과 깨끗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을 리

모폰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했다. 반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엔 한계가 있었다. 콘텐츠 제공 협력을 맺은 '호핀'이나 '티빙'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구글의 유튜브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 등을 시청하는 것은 어려웠다.

'스마트 미러링'은 이와 반대, 이 제품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그대로 비춰지는 미러링 방식이다. 사진첩이나 영화 등 저장된 영상을 열면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TV에 나타난다. 한발 더 나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의 화면을 그대로 TV에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면 이용에 한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쾌적에선 조금 뒤졌다. 스마트폰의 화면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어서 영상에 따라 화질이 떨어질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TV의 성능, 네트워크 환경 등에 따라선 일부 동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두 제품 모두 선도적인 스마트 장치다. 하지만 아직 시험적인 제품인 만큼 콘텐츠 이용 패턴 등 자신의 취향과 기기의 성능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할 바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9일 무심사 임점을 지향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새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밴드 게임'. 사진제공 | 캠프모바일

밴드게임 오픈 플랫폼 전환 카카오킴잡을 묘수 뿜까

검수 절차 최소화...개발사들 게임 등록 장벽 낮춰

'밴드 게임'이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은 개발사들이 제휴 공간인 '밴드 파트너스' 페이지(partners.band.us/partners/ko/gameMain.nhn)를 통해 자유롭게 게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개발사들은 입점 신청을 한 뒤, 게임 개발을 위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발급받고 게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계약이 진행되면 개발사가 희망하는 날짜에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다. 캠프모바일은 정책과 디자인 가이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수만 진행할 방침이다.

밴드 게임은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에 달하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플랫폼. 이 때문에 카카오킴잡이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경쟁자로 꼽혔다. 특히 무심사 원칙과 수수료 인하 등 '카카오킴잡'과 차별화 전략을 취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캠프모바일 관계자는 "앞으로 실력 있는 개발사들이 밴드 게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도 보다 안정되게 플랫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브라질여행 안전수칙 숙지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월드컵 안전여행 가이드' 발표

"쿠이아바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황열병 주의지역이므로 출발 2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월드컵 기간 브라질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브라질월드컵 안전여행 가이드'를 발표했다. 한국팀 경기가 열리는 쿠이아바, 포르투 알레그레, 상파울루 등을 포함해 브라질 주요 도시를 여행할 때 주의할 점과 관광영소를 소개하고 있다.

브라질은 매력적인 관광지이지만 치안상태가 불안해 여행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5일 월드컵을 앞두고 치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5개 도시에 발령한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했다.

관광공사 '안전여행가이드'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가장 빈번한 범죄는 관광객을 표적으로 한 소매치기 및 강도 사건이다. 밖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고가품은 눈에 띄지 않게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다. 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권총을 많이 생산해 불법 총기 소지자들이 많으니 강도를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밤에는 외진 골목길과 '파벨라'로 불리는 빈민가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밖에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복제사건이 자주 발생하니 현금인출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브라질 여행의 안전수칙과 개최도시별 특성, 안전, 관광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국외여행 홈페이지 '지구촌 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르노삼성자동차 CFO에 최숙아 씨 임명



르노삼성자동차가 7월1일자로 재무본부장(CFO)에 최숙아(사진) 전무를 임명했다. 최 신임 CFO는 미국공인회계사이면서 보스턴대학에서 MBA를 마친 재무 분야 전문가. 국내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한국인 여성을 CFO로 영입한 것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처음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 2년간의 리바이벌 플랜의 성공적인 수행과 각종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르노그룹 내에서 르노삼성에 대한 신뢰 및 위상이 더욱 올라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2년 10월 홍보본부장에 황은영 상무를 영입한데 이어 신임 최 CFO 영임을 통해 르노의 핵심 정책인 성별, 경력 등을 배제한 능력 위주 기피제공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스마트폰의 영상 콘텐츠를 TV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소형 N스크린 장치들이 잇달아 출시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쾌적하고 뛰어난 화질을 강점으로 한 '크롬캐스트'(왼쪽)와 저장된 영상과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스마트폰 저장 콘텐츠를 TV화면으로 적적 옮겨주는 '스마트 미러링'.

김명근 기자